

평균 연령 8세 아이돌 그룹 논란



▲ 사진=sohu.com

평균 연령 8세의 아이돌 그룹에 대해 중국 청두시를 기반으로 한 연예기획사가 평균 연령 8세의 보이 그룹의 데뷔 소식을 알리자 아동 착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판다보이스’라는 이 그룹의 멤버는 최소 7세, 최고 11세의 소년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데뷔 소식이 공개되자 중국 국영언론 환구시보의 인터넷판 환구망은 ‘아이돌 그룹 육성 산업의 발전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대가로 희생되도록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돌 그룹 육성 산업의 저연령화 현상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아이돌 그룹 육성 산업은 자칫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해 아만적인 성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년 남짓 인기몰이를 한 뒤 사라지는 연예계에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심신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같은 비판에 현지 네티즌들도 힘을 실고 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이젠 팬들이 덕질을 넘어서 육아까지 하게 된 것이냐?”면서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밖을 뛰어다니면서 성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 이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지 기획사 측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평균 연령 8세의 아이돌 그룹의 등장은 연예 기획사와 제작자들이 그야말로 ‘아이들’을 앞세워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것이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혼인성사 직전 체포된 신랑 알고 보니 마약 카르텔 보스

콜롬비아에서 4년이나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마약조직 고위 간부가 자신의 결혼식 도중 체포됐다.

지난 18일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우라미타 마을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신랑 루이스 다이엘 산타나에르난데스(24)가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콜롬비아 최대 마약조직 ‘클란 델골포’의 고위 간부로, 북서부 안티오키아주와 서부 초코주 지역 조직원들의 활동을 총괄해온 거물이었다. 또 암살과 총기 공급, 마약 밀매 활동뿐만 아니라 보안팀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난데스는 2017년부터 현지 경찰에 지명 수배됐지만, 몇 차례나 추적을 따돌리고 안티오키아주 산악 지대에 있는 은신처에서 지냈다.

최근 현지 법무부가 공개한 증거 영상에는 에르난데스가 약혼자와 서약을 교환하기 직전 현장을 급습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모습과 약혼녀가 경찰관들에게 신랑을 왜 체포하느냐고 항의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클란 델골포는 3,000여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거느



▲ 사진=twitter/콜롬비아 경찰청

린 콜롬비아 최대 마약조직으로 최근에는 불법 무장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단속국(DEA)의 2020년 국가마약위협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클란 델골포는 정기적으로 해상 운송을 통해 인접국인 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로 대량의 코카인을 밀매하는 초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한편 클란 델골포와 같은 콜롬비아의 마약조직 대다수는 미국에서 압수되고 있는 코카인의 91%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 너무 많이 팔았다” 식당 상대로 소송한 남성 550만 달러 승소

과음한 뒤 음주 폭행 사건에 휘말린 남성이 당시 술을 마셨던 레스토랑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다니엘 톨스는 2019년 5월 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술에 취한 톨스는 식당 주차장에서 역시 술에 취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번졌다.

톨스는 이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그는 손님이 과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고 술을 계속 판 탓에 싸움과 부상으로 이어졌으며 당시 방문했던 레스토랑을 고소했다.

그는 “레스토랑 측은 내가 술에 취해 싸움이 벌어진 뒤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태만했다.”면서 “만취한 고객이 넘어지거나, 넘어

어졌을 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건을 주차장에 방치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부터 열린 재판에서 레스토랑의 소유주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등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최근 레스토랑 측이 톨스에게 총 5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톨스의 모든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레스토랑 측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톨스의 주장만을 반영한 판결인 것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톨스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 측이 30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